어린양의 아내의 백마 탄 남편

(계19:11~21)

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 그 눈은 불꽃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어린양의 아내의 백마 탄 남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어린양의 아내의 백마 탄 남편'
제목이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지요.
어린양의 아내라면 벌써 아내라는 여성의 남편이 어린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양의 아내의 남편이 백마 탄 자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말은 내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과 같아요. 내 아내의 남편은 나잖아요.
논리적으로 내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은 잘 맞지 않는 말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아내의 남편이 어린양에서 백마 탄 자로 바뀌는 과정이 계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 인격체인데 어린양이었다가 백마 탄 자로 바뀌는 이 과정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계시록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뭐였습니까?
19장에서 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음으로 혼인이 이루어

지는 거예요. 준비된 아내에게 혼인식을 위해서 허락하신 옷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그 옷이 비유적으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나에게서 나타나는 옳은 행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과 혼인을 할 수 있는 아내로 준비되었다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더니 왜 행실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 연합이 옳은 행실이라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정혼을 하는 것이고, 그 정혼 기간 동안에 옳은 행실이 나올 수 있는 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행실이 신부가 입어야 될 결혼식 예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진행되고 주님과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은 뭡니까?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겪어야 될 과정을 지나 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끊임없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어린양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고백이 매일 매일의 고백이 되고, 매일 하던 고백이 매순간의 고백이 되면서 완전히 내 마음에서 주님과 함께 어린양 되신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기쁨을 찾지 않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어린양과 함께 죽는 것이니까, 그 고백이 매순간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기쁨을 찾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바벨론이 완전히 내 마음에서 망해버린다는 것이고 바벨론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기점으로 해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준비가 완결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어린 양 되신 주님과 온전한 연합 상태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면, 어린양은 온전한 결혼식을 기점으로 백마 탄 자로 바뀌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양과 결혼을 했고, 어린양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린양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생활화하며 살고 있는데, 그러한 생활화가 죽을 때까지 계속 되는 동안에 어린양과의 결합이 완성되면, 이제 그 어린양은 내 삶에서 백마 탄 자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변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아내들이 변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이 계시록 내용이 앞의 1장에서 승천해 계신 인자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주인으로 드러나십니다. 그러고 나서 2~3장에서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일곱 교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온 단어가 뭐냐 하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교회를 제외하고 다섯 교회에서는 그 교회 안에 이김이 나타나지 않고 지는 일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는 일이 계속 될 경우에는 아내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므로 이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는 이야기가 6장부터 일곱 봉인을 떼며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일곱 번째 인 속에 들어가 있고, 일곱 인은 어린양이 떼십니다.
그러면 일곱 인이 떼어지는 가운데 나타나는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까지의 모든 과정의 내용은 뭡니까?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666표를 가진 짐승과 성도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양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내가 적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아내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을 때, 곧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신 것인데, 곧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착안해서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찾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이라면 일곱 머리가 로마의 어느 황제를 일컫는다고 상응시키고 적용시키는 것이 요한계시록 해석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린양과 어린양의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정혼의 관계에서 혼인의 관계로 변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 정혼한 자가 되어서, 온전한 혼인 관계를 이루는 과정까지가 19장까지 나와 있는 것이고. 19장에서 드디어 그 모든 3대 7중 재앙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긴 자, 즉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반복해서 모든 교회에 공통되게 주신 말씀인 이기라는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서 내가 이긴 자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혼인이 이루어지는데, 그 혼인이 이루어 질 때에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어린양이 아니라 백마 탄 자로서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결합 상태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 남편으로 사시는 분은 더 이상 어린양의 모습이 아니라 백마 탄 자의 모습으로 사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한 것이라면 요한계시록이 별것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좀 역사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언적인 성격이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이 감히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boundary를 벗어난 말씀이 존재하리라는 기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해설서들을 보면 지금 계속 어린양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양의 십자가 사건이 해석의 중심에 있지를 않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완전히 망각되어 버린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 사건은 저만치 떨어져있고 이제는 역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만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십자가가 만들어 놓은 경계를 벗어나는 말씀은 존재할 수가 없고, 그런 말씀이 존재한다면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뭘 기대하셨습니까?
그러나 굉장한 내용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식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연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지는 자와 이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666표를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코 그 안에서 바벨론이 멸망해버리고 연합을 이루는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겨서 예수님과 연합만 한다고 하면, 이 역사에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사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철두철미하게 예수님과 찰떡같이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어 백마 탄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신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모습이에요.
백마 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면 어떤 모습으로 사실 것인가가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1~6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사는 동안에 백마 탄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면서 삶이 끝난다면, 또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환란과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게 무슨 대수냐는 겁니다.
주님과 결합할 수만 있다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다고 그게 대수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 내가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한다고 한들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궁극적으로 무슨 대단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무슨 관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관심조차도 땅에 마음을 붙이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땅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까?
땅에 살고 있는 내가 마음을 완전히 하늘에 둠으로써 이 땅에서 기쁨을 얻으려는 바벨론이 멸망해버리고 완전히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내가 사는 동안 여생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백마 탄 자로서 오셔서 나를 통해서 백마 타신 활동을 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의 과정은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광야의 생활이 있었고 복지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이냐?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지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의 시기에 들어와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복음을 어떻게 생활화함으로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늘에 계신 그 분만을 나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백마 탄 자로써 나의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백마 탄 자로서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11절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백마 탄 자로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참되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만이 선악과 열매를 따 먹지 않은 그런 죄 없으신 상태의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는 이야기는 선악과를 따 먹은 자들이 판단하는데 그 모든 판단이 왜곡되고 부패하고 썩은 거예요.
판단이 뭡니까?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는데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다 잘못된 것을 판단해냅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하지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루어지면 큰일 나겠다고 하지만 큰일 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게 왜곡된 상태에서 사는데, 하나님 이외의 존재로서는 주님만이 하나님에게만 충성되시면서 하나님의 판단만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에서 바로 그 일을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12절에 “그 눈은 불꽃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참 어렵죠.
‘눈이 불꽃같다’라는 이야기는 꿰뚫어 보신다는 이야기인데 남편으로써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나와 부부 관계에 계신 분이므로 내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 못하고 해석 못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혼인잔치 이야기를 한 뒤에, 혼인잔치에서 내가 아내가 될 때에 남편 되신 분이 어린양에서 백마 탄 자로 바뀐 겁니다. 이것과 연관 지어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머리의 많은 관들’
여기서 백마 타신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왕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한 인격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인격체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남편이 되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참 성도, 이긴 자들이 3억 명이 있다면 그 3억 명이 하나로 묶여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왕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한 분이시지만 14만 4천명으로 상징되는 성도 개개인에 대해서 왕관을 가진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한 이름이 있는데 당신만이 아신다’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부부관계를 가만히 살펴봐요.
말이 좀 많고 수다스러운 아내와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편이 모든 일에 주도면밀하게 되면 아내는 소극적이 되고 남편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남편이 매사가 덤덤하고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는 사람과 살면 여자가 나서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신랑 되심에 있어서 공통적인 속성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 진실하시고, 인간에 대해 참되신 속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부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태승철에 대해서 남편이 되셔서 태승철의 주인 되심으로 왕관을 쓰실 때에는, 태승철의 사람됨과 하나님이 지으신 태승철의 특성과 그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과 모든 것들에 맞추어진 남편이 되십니다.
또 옆집에 사는 박씨 아저씨가 참 된 성도로서 이긴 자로써 예수님의 아내가 될 때에는 그 박씨 아저씨가 갖고 있는 특성과 삶의 정황을 불꽃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그 분에게 맞는 남편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회 속에서 그 존재를 부르기 위해서 붙인 기호 아닙니까?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특수성에 맞춰진 유일한 예수님의 모습이 단 하나뿐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맞춰진 남편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름인데 나, 태승철 조차도 몰라요.
왜냐하면 태승철이 태승철을 보는 것과, 남편 되시는 백마 탄 자로서 주님께서 태승철을 보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남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넋 놓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은 하나님께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모든 판단을 다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참되시게 그 판단을 실행해나가시고, 나의 모든 특성과 속성을 다 아시면서 나에게 맞추어진 남편으로써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에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70억이 살고 있어도 나는 나 하나뿐이잖아요. 나 하나에게 맞춰진 남편으로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머리에 많은 왕관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이 있고 그 하나의 이름은 당신 자신밖에는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이런 분이 우리 남편이십니다.
여러분! 그 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 좋은 예수님과의 결합이 이루어지기까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3대 7중 재앙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우리는 정혼한 자로써 결혼할 신부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가 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의 삶은 어떻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냐가 삶의 과제였다면,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아서 하늘의 뜻을 땅에서 펼쳐 나가시느냐가 과제인 삶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런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고 나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저주의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 그렇게 큰 고통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의견과 생각과 계획이 일점일획도 머리털 끝만큼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주님을 통해 다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포함한 것을 말하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런 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어느 것도 머리 털 끝만큼도 땅에 버려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주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임하시는 분이냐?
그런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시려고 할 때에, 하늘에 있는 천군천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분 뒤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천군천사를 거느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 내 남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남편 찾을 것 없어요. 이 세상에서 권세 잡은 남편 찾을 것 없어요.
하늘의 천군천사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분이 내 신랑입니다. 우리 신랑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말은 바로 3대 7중 재앙을 요약한 것입니다.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경우에 그 사람 속에서 사탄의 지배체제가 붕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일곱 인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접한 사람들이 여전히 사탄의 지배체제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이 땅을 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곱 나팔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말을 듣지 않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최후 심판에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라는 말씀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옷'은 바로 내 안에 계신 남편이 이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신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왕이라는 것이고 내가 왕의 아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라고 하는 뜻은 내 남편의 발로 이 세상을 딛고 선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분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더 큰 일은 두 짐승이 영원히 불타는 연못으로 던져지는 멸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천년 왕국과 묶어서 말씀을 나눠보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재미삼아 점을 볼 때에 점괘에 귀인이 오신다고 나오지요.
주님이 바로 백마 타고 오시는 귀인이고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백마 타신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셔서 내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 다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 세상 삶이 끝나는 그 날까지 날마다 어린 양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